

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타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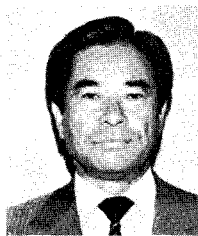
● (사) 대한양돈협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34번지(752-8734, 778-5450·5540).

● 관인 수도요리학원: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51-1(762-8282·8822)

■ 한국영양사료연구회 창립 10주년



한인규 회장



박찬경 회장

한국영양사료연구회(회장: 한인규)는 한국사료협회와 공동주최하고 ASA와 축산시보사의 공동후원으로 올해로 동연구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다 음

1. 일시: 1986년 11월 14일(금)~15일(토)
09:00~17:30
2. 장소: KAIST 존슨 강당(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
3. 내용: (1) 기념 행사 1986년 11월 14일(금) 16:30~17:30(프로그램 당일 배부)
(2) 기념 리셉션 1986년 11월 14일(금) 17:30~19:30
(3) 기념 심포지움 1986년 11월 14일(금)~15일(토) 양일간
(별첨 프로그램 지난호본지참조)

■ 외래성 가축전염병 편람 발간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설동섭)는 농수산부 축산국 FAO와 공동으로 UNDP가축위생 강화사업으로 지난 9월 외래성 가축전염병 편람을 발간 배부하였다. 이책자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발생에 대비하여 외래성 질병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방

역요령은 물론 부검 소견이 원색으로 곁들여 있어 초보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종축개량협회 혈통확인업무 개시

정부가 10월 1일부터 종축의 혈통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정액혈통확인을 종축등록기관이 실시하도록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10월 10일부터 혈통확인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정액 또는 수입정액에 대하여도 정액인공수정증명서에 확인을 하여 줌으로써 계획교배와 근친번식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료곡물절감 표어 입선작 시상

축협중앙회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료곡물절감에 관한 표어를 모집, 입선작품에 대한 시상을 했다.

최우수작에는 상패와 상금 20만원, 우수작에는 역시 상패와 상금 10만원씩이 각각 시상됐는데 작품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작: 「자급사료 생산농가
배합사료 절약농가」
우수작: 「자급사료 확보하면
나도싱글 소도병글」
우수작: 「사료자급 외화절약
농가튼튼 나라튼튼」

■ 한국식품과학회 '86정기총회

동학회(회장: 하덕모)는 86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지난 10월 18일 서울여대 종합교육관 및 과학관에서 개최했다.

이행사 외에도 오는 11월 25일부터 3일간 올해를 결산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 농협체육대회 및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윤근환)는 지난 10월 15일 임직원 1천여명이 참석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농협 임직원 3백여명은 12일 오후 북한산유원지에서 4톤가량의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산불방지 등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낙농육우 세미나가 동협회 주최로 지난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농수산부 축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낙농 및 육우산업의 현재를 재조명해보고 양축가의 자세정립과 시책당국에 대한 양축가의 결의를 표명함으로써 낙농육우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 경제역학의 변화와 축산물 수입개방문제”를 내용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의 허신행박사가,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내용으로 서울우유의 강성원조합장이, “낙농경영의 개선”이란 내용으로 건국대학교 윤희섭교수가, “생산자 단체의 활동과 자조금제도”의 내용으로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영인회장이 각각 발표를 했다.

■ 축산경영학회 학회지 창간 자축연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유제창박사: 건국대)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학회지 창간호발간 자축연 및 이사회를 가졌다.

86아세아 올림픽의 달리는 꽃시슴 임춘애 선수에게 10년간 우유를 공급하기로 하여 일간지를 통하여 이미 유명해진 유제창 회장은 우유계란 등 축산물을 많이 먹으면 체력이 향상되어 더 많은 금메달을 딸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창간호에는 축산경영에 대한 논문 12편이 실려있다.

■ 가축번식학회 창간 10주년

가축번식학회(회장 정영채박사: 중앙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학술대회 및 기념행사를 지난 10월 25일 건국대 사회과학관 101호에서 개최하였다.

阿部猛夫박사(일본가축개량사업단 상임고문)의

「일본에 있어서 유우의 개량」, 임경순박사(서울대 농대교수)의 「토끼의 수정란 동결에 관한 연구」라는 연제로 창립 10주년 특별강연이 있었다.

■ 심포지움 개최

한국공업 과학회는 진흥청 대강당에서 첨단과학기술과 농업혁신에 대한 심포지움을 10월 17일 개최하였다.

축산부분은 정영채 학장이 발표하였으며 심포지움 종료 후 황인성 장관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있었다.

■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

- 달걀 매일 39만개 공급 -



강희구 조합장

86아세아 게임에 계란을 납품한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은(조합장: 강희구). 최근 서울계란가공(주) 공장을 이용하여 액란 판매에까지 업무를 확장하므로서 계란시장 점유율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

■ 수의학회 학술발표회

대한수의학회(회장: 조충호교수)는 86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지난 10월 25일 서울대 수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 세계 농업의 날 개최



인디애나주 농무성과 미국 가축생산자 협회(Am-

erican Livestock Producers International)가 공동 후원하는 제 7 차 International Agricultural Field Days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렸다.

■ 제21회 잡지의 날 기념식

한국잡지협회는 지난 11월 3일 21회 「잡지의 날」을 맞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부포상 및 한국 잡지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 위민실 전화 국번+3000번

내무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개설, 운영할 위민실(爲民室)의 대표전화번호를 도·시·군·구·읍·면은 국번+3000번, 시·도경·경찰서등은 국번+7000번으로 통일, 설치키로 했다.

■ 검역시행장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농수산부고시 제86-38호 86.11.1)

검역시행장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개정내용 중 초생추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발췌소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역시행장 지정대상 : 초생추
2. 검역시행장 지정신청 : 수출입 검역물의 검역시행장을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국립동물 검역소장 또는 관할 지소장에게 신청.
3. 검역시행장 지정기간 : 3개월(다만 당회분은 1개월).
4. 검역장 시설기준 : 초생추(병아리·오리) 검역시행장.

1) 검역관실 :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등 검역업무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써 검역상 필요한 냉장고, 시료운반함, 소독기구 및 소독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독 약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5조의 소독방법과 기준에 의한약품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소의 위치 : 검역시행장소는 지정 계류사의 반경 50m이내에 양계장, 도계장, 부화장 계분처리장, 사료공장등 관련시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창이없는 계사 또는 고정창문 계사로써 출입 구조가 2중문으로 되고 계류사내에 탈의시설이 있는 경우.

나. 해안, 하천 등 지리적 여건상 고립 또는 자연적인 격리가 가능한 경우.

3) 검역계류시설 : 가. 계류사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주위는 철조망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계류사 및 사료창고의 창문 및 환기창 등은 방충, 방서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 탈의실 및 세척 시설은 계류사내 또는 계류사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

라. 출입구 소독조는 장화를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수세소독조를 계류사 출입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류사의 구조 :

가. 계류사의 전용면적은 병아리의 경우 1,000㎡(1회 10,000수 수용규모)이상, 오리의 경우 200㎡(1회 2,000수 수용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이환 측사를 별도 구획 설비하여야 한다.

나. 바닥과 내벽은 돌, 콘크리트, 벽돌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방수처리를 하여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오물처리장 : 검역기간 중의 배설물과 오물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소각장 : 폐사체, 오염물등을 방역상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7) 출입제한 : 검역시행장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 및 사료등의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8) 전임관리인숙소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위한 전임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되 동 숙소는 가능한 계류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

5. 초생추를 수입코자하는 자는 수입허가신청시 검역시행장 관할 동물 검역소장의 검역시행장 확인여부 및 국내도착시기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6. 수입 초생추의 검역관리요령.

수입초생추의 검역은 해외 악성 가금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소 및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가축방역 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 내 수입 초생추의 입고전과 출고후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관할 소장은 수입 초생추의 검역 기간중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나. 폐사추, 오물, 배설물등에 대한 소각 매몰등의 방역조치.

다. 기타 검역상 필요한 사항.

3. 수입 초생추 검역 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계류사에 대하여는 해당 초생추 입고전 30일 이상 기존 가금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관할 소장은 수입 초생추의 검역 종료 즉시 초생추 검역 시행장 관할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검역장소 나. 축주명
 다. 품 종 라. 수 수
 마. 원산지 바. 도입일자

사. 검역 종료일 아. 예방접종등 기타특기사항

5. 관할 소장으로부터 초생추의 검역종료 사실을 통보 받은 관할 도지사는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초생추에 대하여 검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간 다음과 같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시,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또는 병성감정등의 실시.

나.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 발생시 격리,

이동제한,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 사항을 도지사 및 축주에게 보고(통보).

다. 예방접종 권장 및 지도.

■ 세계식량의 날 기념행사

세계식량농업기구 한국지부(FAO)는 지난 16일 세계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프레스 센터에서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에 이어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정한 국민식생활 개선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태종 고려대 교수는 값싼 계란같은 단백질식품을 우리나라민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산부 장관도 이날을 기념하여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6회 세계식량의 날에 즈음한 담화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979년 제20차 정기총회에서 매년 10월 16일을 “세계식량의 날”로 정하고 인류를 굶주림과 영양실조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범세계적인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지역간 혹은 소득계층간 분배의 불균형으로 한쪽에서는 영양의 과잉섭취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량의 부족과 균형되지 못한 분배는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와같이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정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농정의 주요지표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두고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과학적 영농방법을 통한 생산성향상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소비형태가 다양화, 고급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구조

적으로 어려운 밀, 옥수수등 사료 및 공업용 곡물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식량자급도는 '70년에 81%에서 '85년에는 49%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는 농업 정책적 차원을 넘어 한나라의 안보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함을 말해주는 소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의 증대가 우선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한톨의 곡식이라도 아껴야겠다는 소비절약의 자세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오늘 뜻깊은 "세계식량의 날"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들께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자원을 이용하여 생산가능한 쌀, 보리, 감자, 고구마, 과채류, 축산물, 수산물, 임

산물등 국내부존 식량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겠으며,

둘째, 한톨의 곡식이라도 아끼는 절약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간접적인 식량증산에 기여하도록 합시다.

셋째, 또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주의자와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 비축식량을 확보해야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일은 비록 사소하고 또 귀찮은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모든 국민이 다함께 이를 실천하고 성실히 실천에 옮길때 그것이 바로 애국애족하는 길임을 명심하여 모든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오늘 "세계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식량증산에 수고하시는 농어민과 소비절약으로 식생활개선에 앞장서 노력하시는 국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축

월간양계 창간 17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풍산업주식회사

대표 최 죽 송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 (천록빌딩 7층)

TEL. 845-1171~4